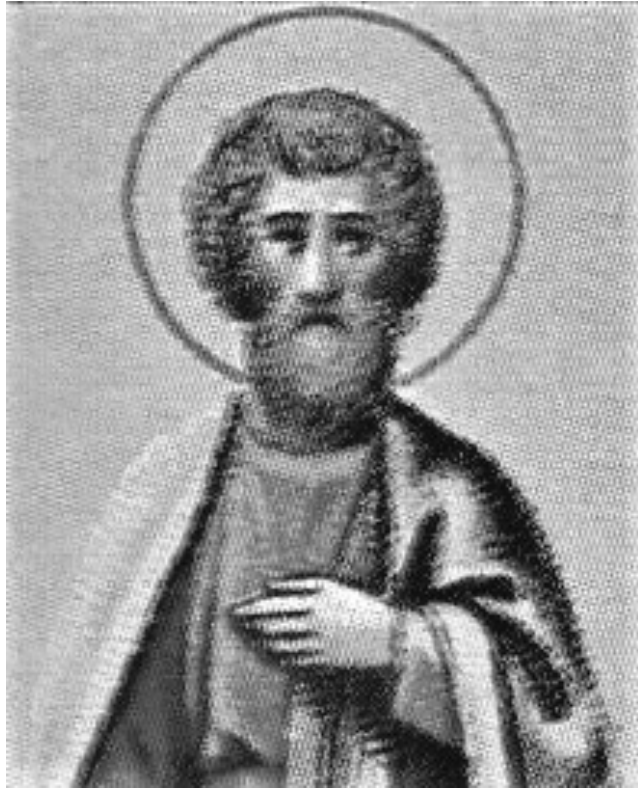




정교회 한국대교구 2021년 39째주 (9월 26일)

정교회 주보



성 테오파니스

루가 제 1주일

요한 복음사도 신학자

제 5조, 조과복음 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에서

•제 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주일 입당송 / 14, A 42

•사도 찬양송 / 84, B 262

•성당 찬양송

•주일 시기송 / 85, A 226

•사도경 : I요한 4:12~19 / 봉독서 581

•복음경 : 요한 19:25~27, 21:24~25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테오파니스

우리 교회에서 9월 29일을 축일로 기념하는 자비로운 테오파니스 성인은 시리아의 가자 출신입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였고 동정심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자신도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는 말년에 수종병에 걸려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몸은 부어오르고 썩고, 악취가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테오파니스는 이런 시련을 견디고 하느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고 아내는 남편을 제대로 땅에 묻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성 테오파니스는 아내를 위로하고 자신이 죽을 시간을 아시는 자비로운 하느님께서 폭풍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성 테오파니스가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바쳤을 때, 폭풍은 멈추었고 평온해졌습니다. 성인이 죽은 후 몸에 난 상처들을 닦아내자, 몸에서는 성인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향유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가지 방법

덤불은 항상 키 큰 편백나무 옆에 있습니다. 힘센 사자 옆엔 토끼가, 강자 옆엔 약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과 피조물들 사이의 여러 가지 것에는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상반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 부자 옆에 가난한 자, 재능 있는 사람 옆에 무능한 사람, 근면한 사람 옆에 게으른 사람!

어떻게 해야 이러한 상반되는 것들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다음의 두 가지 방법을 선호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토끼를 잡아먹는 사자입니다. 강자는 약자를 제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우리 사회는 강자가 약자를 삼키는 정글로 바뀝니다. 영리한 사람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을 비웃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착취합니다. 본능이 사람을 이끕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동물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창조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서 나약한 자들에게 겸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궁극의 겸손에까지 이르셨습니다.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높이까지 우리를 올리기 위해 극도로 낮게 내려가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세상의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해 “평등”을 권장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평준화시키는 것으로 끝맺음합니다. 강자와 약자를 평준화한 후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말합니다! 즉, 키작은 덤불이 닿을 수 있도록 키 큰 편백나무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토피아

에나 있고 여기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이 강자가 약자를 억누르는 억압으로 이어진다면, 모든 것을 평준화하는 두 번째 방법은 무정부 상태로 이어져서 결국은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하는 자에 의해 다시 억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바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자기 좋을 대로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로마서15:1)라는 사도의 권고입니다.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즉,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몸을 굽혀 약자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신성한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II고린토8:14)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 그것들을 나누어야 마땅한 책임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모든 완전한 선물**”(야고보1:17)을 주시는 하느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받은 선물입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은, 요한 크리소스토모스 성인께서 말씀하셨듯이 “**좋은 집사가 되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용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세상이 평등해지는 유일하게 올바른 방법입니다.

†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대주교

파이시오스 성인의 기도(1)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교회에서 멀리 떠나 살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당신께로 되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주여,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작거나 중하거나 병으로 고통을 겪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육체적으로 허약하여 고통을 겪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영적인 병으로 고통을 겪는 당신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일을 하도록 영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문제가 많은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가정들과 이혼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의 모든 고아들, 아픔과 불의로 고통스러워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감옥에 있는 이들, 무정부주의자들, 약물에 중독된 이들, 살인자들, 남을 학대하는 이들, 모든 도둑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어, 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도록 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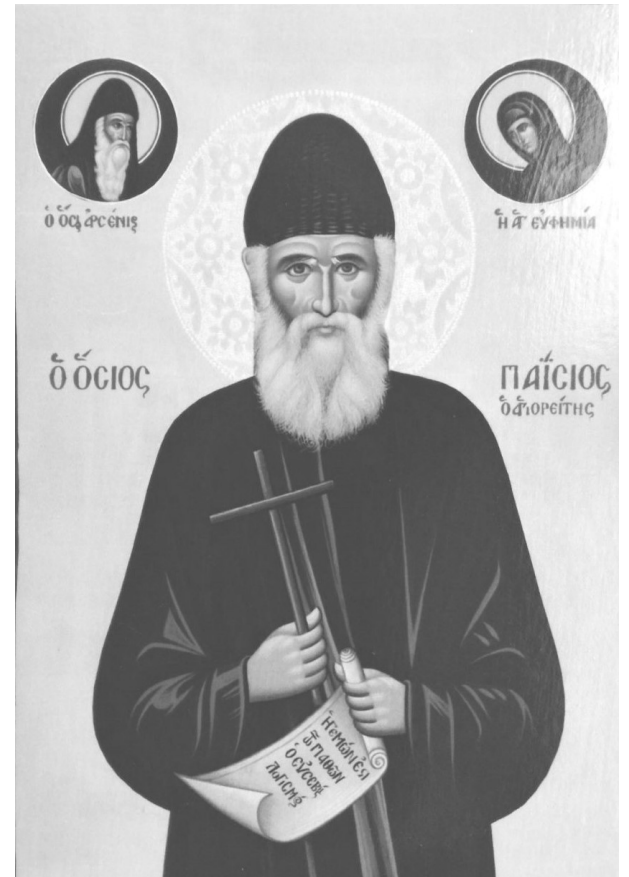
주여,

바다와 땅과 하늘로 여행하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보호해주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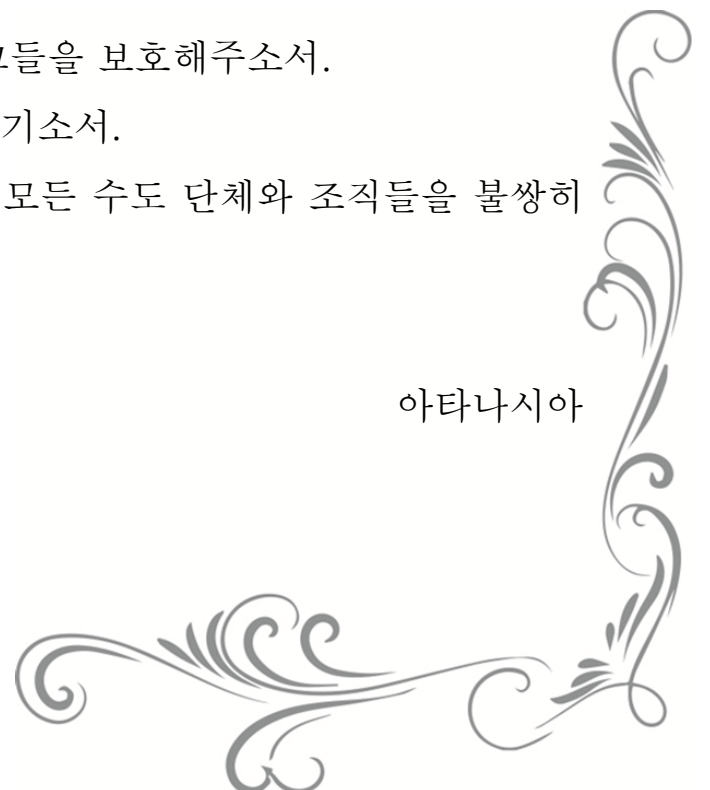
우리 교회와 주교들과 사제들과 모든 신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든 남녀 수도원 공동체와 영적인 남자, 여자 원로들과 모든 수도 단체와 조직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다음에 계속)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

올해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 축일은 주일입니다. 각 지역성당에서는 주일 성찬예배를 드리면서 축일을 기념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정교회 24인 수호성인들의 중보로 한국정교회가 올바르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성장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온라인 성서공부 시청

매주 월요일에 제공되는 온라인 성서공부를 시청합니다. 성 사도 바울로의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신을 공부합니다. 매주 월요일 한국정교회 유튜브에 업로드되는 성서공부를 통해 우리들에게 유익한 영적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온라인 줌 단체모임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온라인 줌을 이용한 비대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듯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양식을 취해야 합니다. 온라인 줌 단체모임을 통해 우리는 영적양식을 취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

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지하는 시간에 따라 각 단체의 회원들은 꼭 참석해서 영적으로 유익한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 코로나19에 대한 밤 10시 기도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는 한국정교회 각 지역성당에서 예배 때마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 신자들이 매일 밤 10시에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기도를 드리는 캠페인을 코로나 전염병 발생초기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형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의 도움으로 어서 빨리 코로나19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 교회묘지 관리비 납부 안내

추석을 맞이하여 용미리 교회 묘지의 벌초 작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올해 교회묘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의 계좌로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 관리비는 100,000원입니다.

우리은행 077-041887-01-103

예금주 : 한국정교회 유지재단

